

20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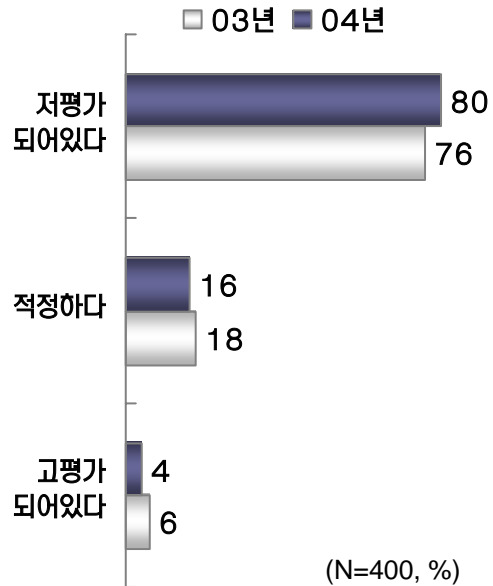
구분	내용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평가	①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평가 및 기업주가의 저평가 원인 ② 저평가 원인 해소 시 투자증가의향 및 증가정도 ③ 저평가 원인 해소 시 주식시장 활성화 여부 및 주가지수 상승정도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①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도 -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도/ 선진국 대비 개선수준/ 기업지배구조 개선가능성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주체 및 효과적인 방안 ③ 기업 투자 결정시 기업지배구조 영향정도 - 기업 투자결정 시 가장 큰 고려요인/ 기업지배구조 고려여부 - 기업지배구조 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운영	① 주주의 권리보호 - 주주의 권리보호 정도 및 권리보호 미흡한 이유 - 주주권 해치는 경영행위 발생 시 규제기관의 조치 적절성 - 주주총회 주주 의견 반영정도 및 반영되지 않는 이유 - 경영진에 대한 외부견제장치 작동정도 및 효과적 작동을 위한 중요사항 - 대주주 과도한 경영권 행사 동의여부 및 해결책 - 부당내부거래에 관련한 의견 ②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규모 적절성/ 사외이사 비중 적절성/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보유여부 ③ 이사회 운영 - 사외이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 수행정도 및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 경영자 선임과정 적절성/ 경영진 성과평가시스템 작동정도/ 경영진 및 사외이사 보상체계, 수준 - 이사회 효율성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사외이사제도에 관련한 의견 ④ 경영투명성 - 기업의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정도 - 경영현황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정도/ 정보제공 신속성 및 신뢰성 ⑤ 감사기능 -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적절성 및 적절하지 않은 이유 ⑥ 배당 - 기업의 배당수준 적절성/ 주가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하는 정도 - 미국수준의 배당 실시 시 우리나라 기업 투자증대의향/ 적정배당 실시 시 장기투자 유도 가능여부

1.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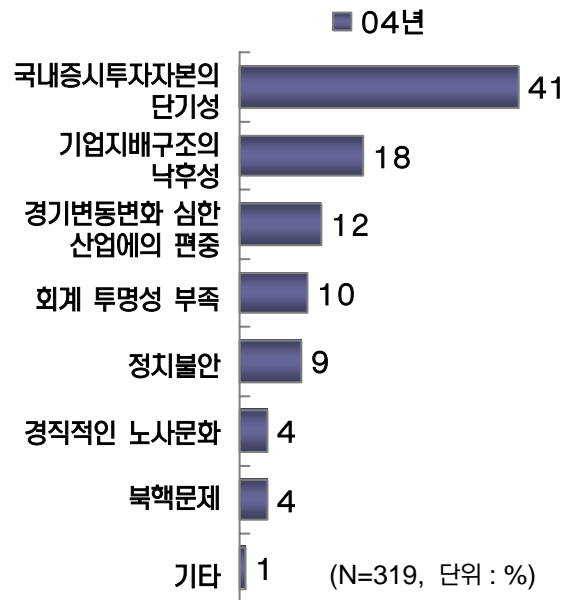
Key Finding

- 전체 응답자의 80%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평가 원인 개선 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함
- 주가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국내증시 투자자본의 단기성”과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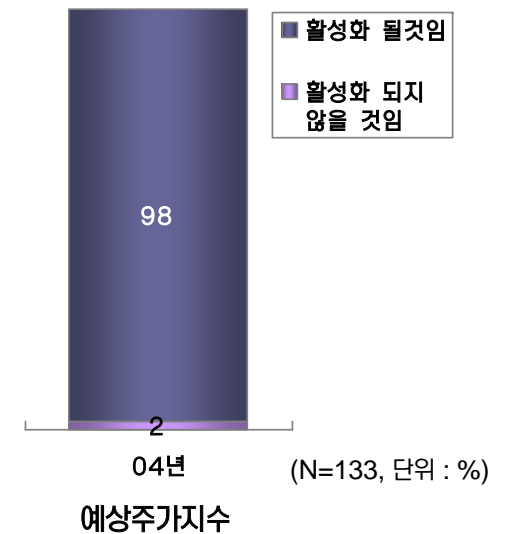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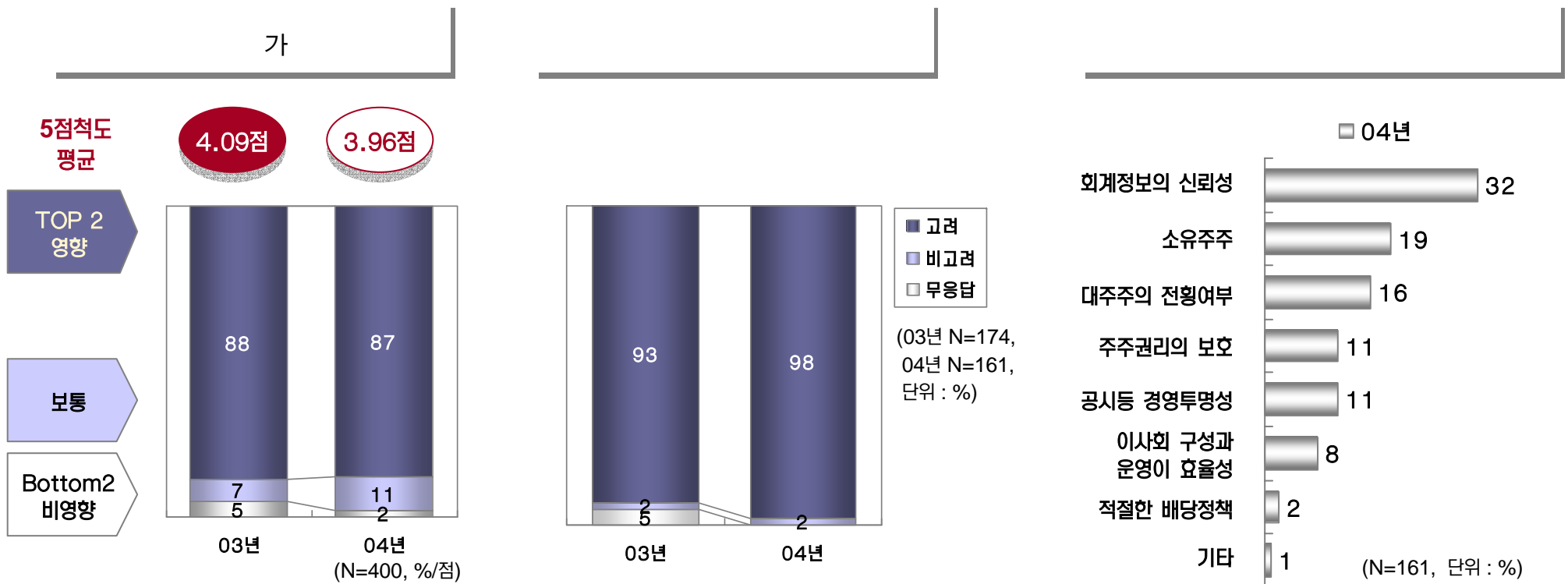
예상주가지수
1,348 point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p=0.238, t=1.182)

2.

Key Finding

- 기업지배구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기업투자 판단시 대부분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 투자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업지배구조 요인으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소유주주” 및 “대주주의 전횡여부” 순으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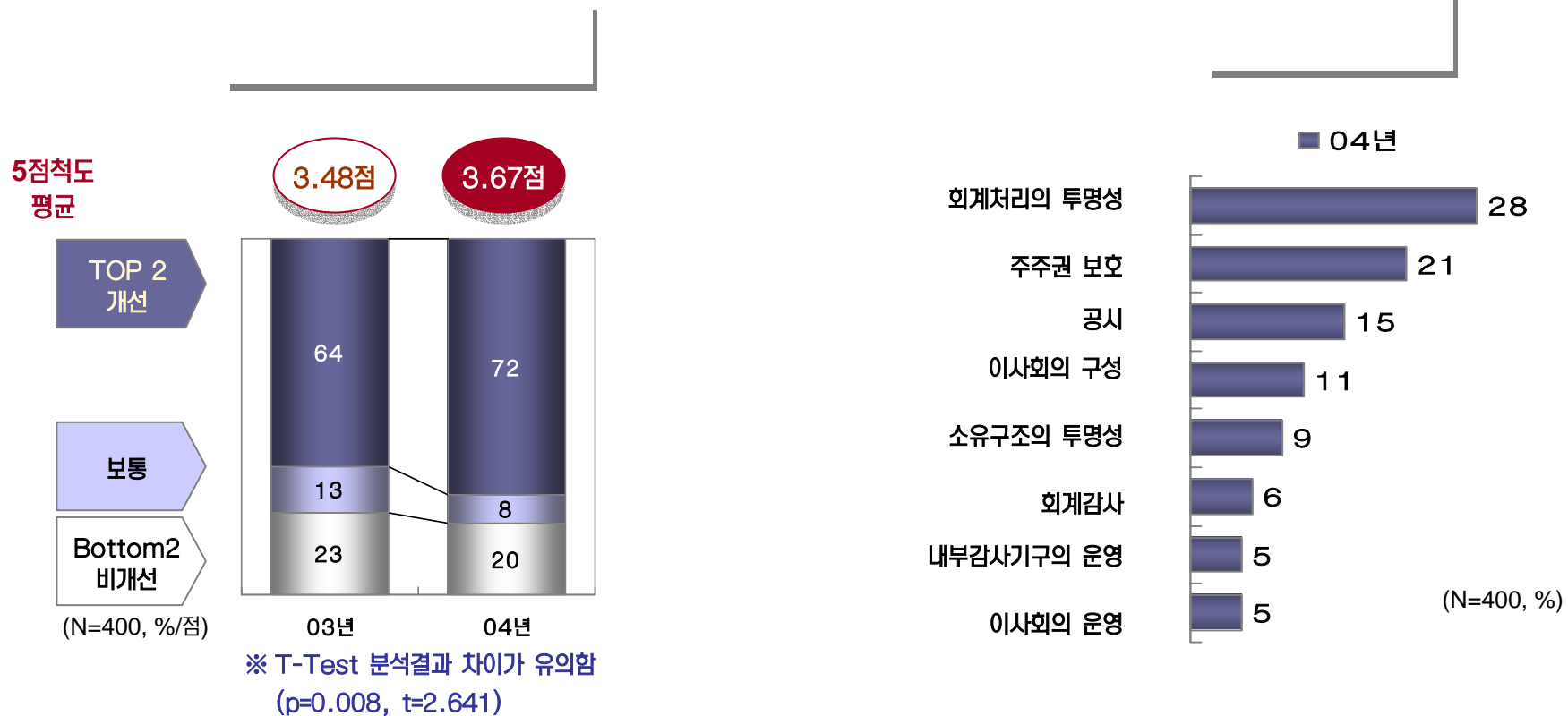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8, t=2.659)

3.

Key Fi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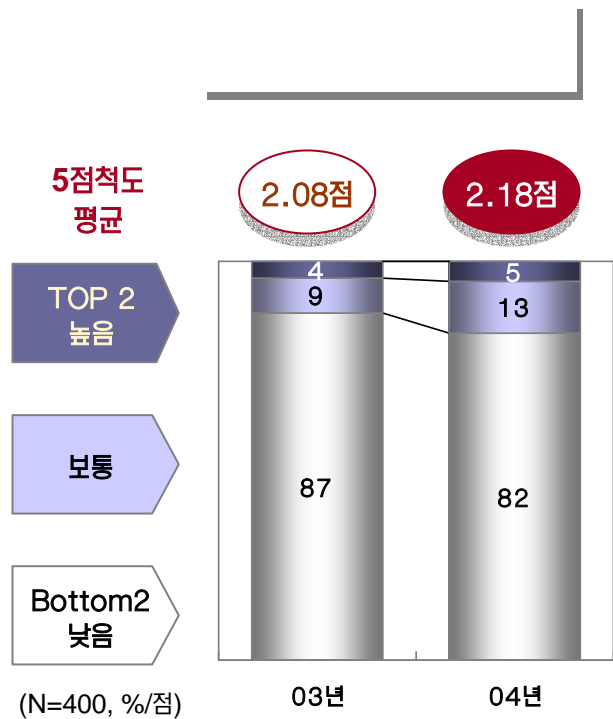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높음
- 기업지배구조 중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주주권 보호”, “공시” 등을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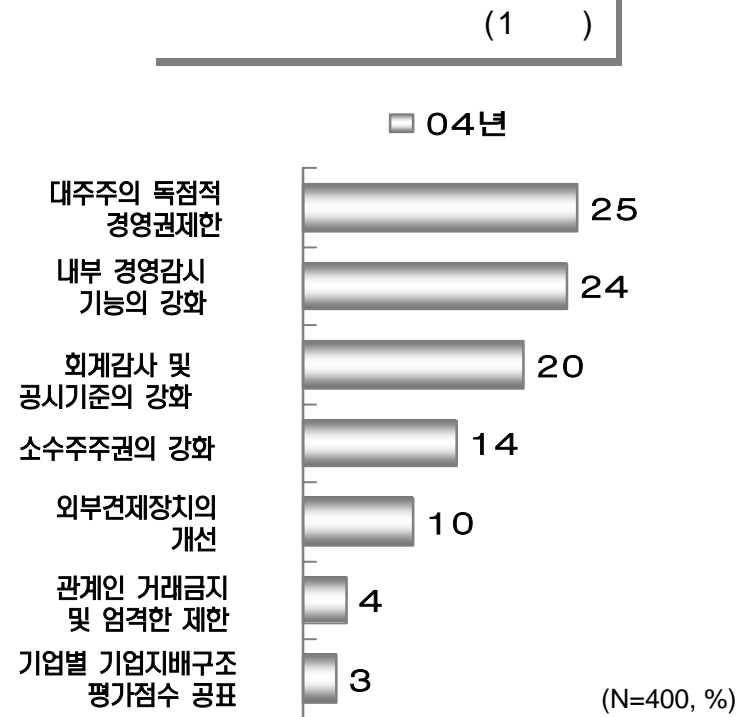
4.

Key Finding

-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단, 03년 대비 개선수준이 다소 높아졌으며 질적수준도 다소 상승함
-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 행사 완화”, “내부 경영감시 기능의 강화”,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화” 등을 꼽음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11, t=2.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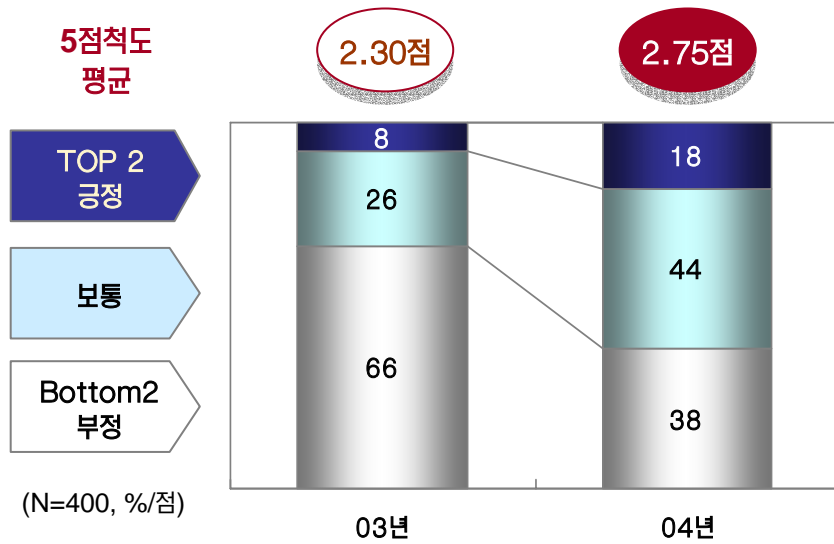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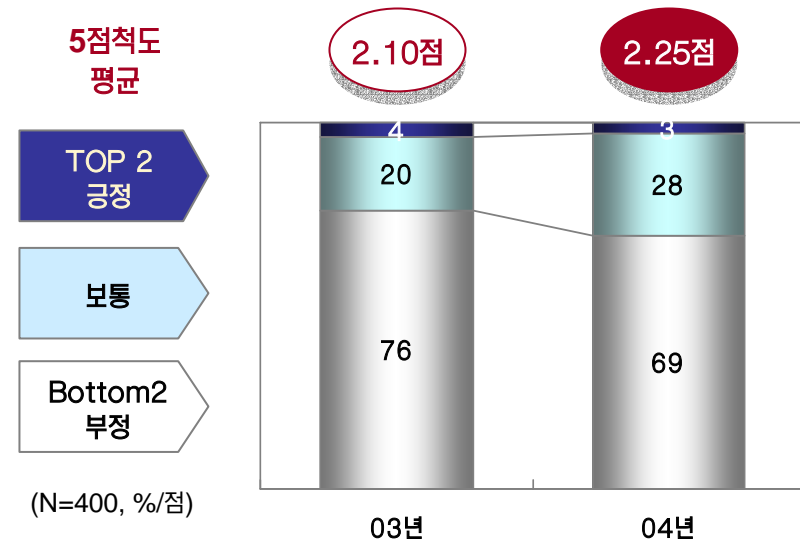
(1)

Key Finding

- 주주의 권리보호 및 의견 반영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03년에 비해서 다소 높아짐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0, t=7.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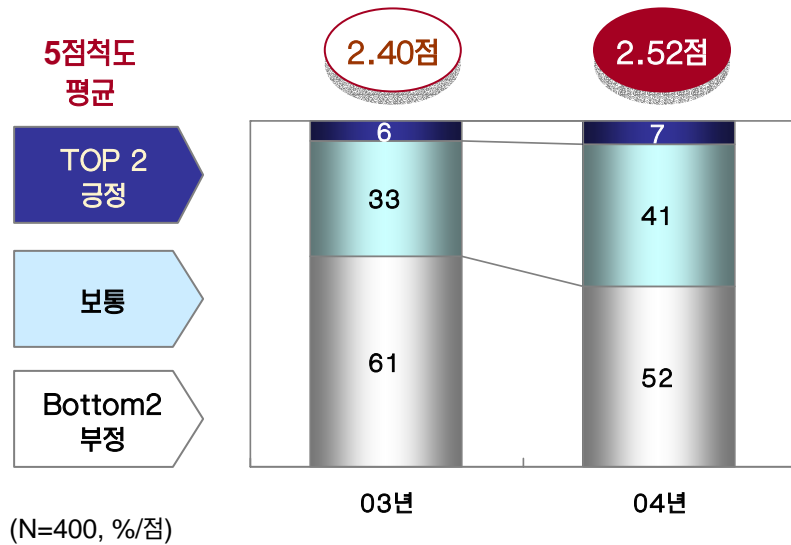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2, t=3.03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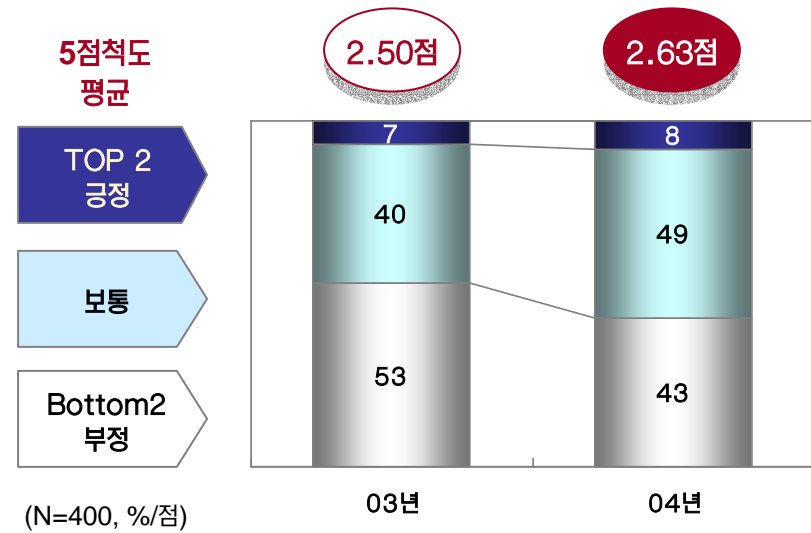
(1)

Key Finding

- 경영진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나 외부견제 장치의 작동도, 03년 대비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16, t=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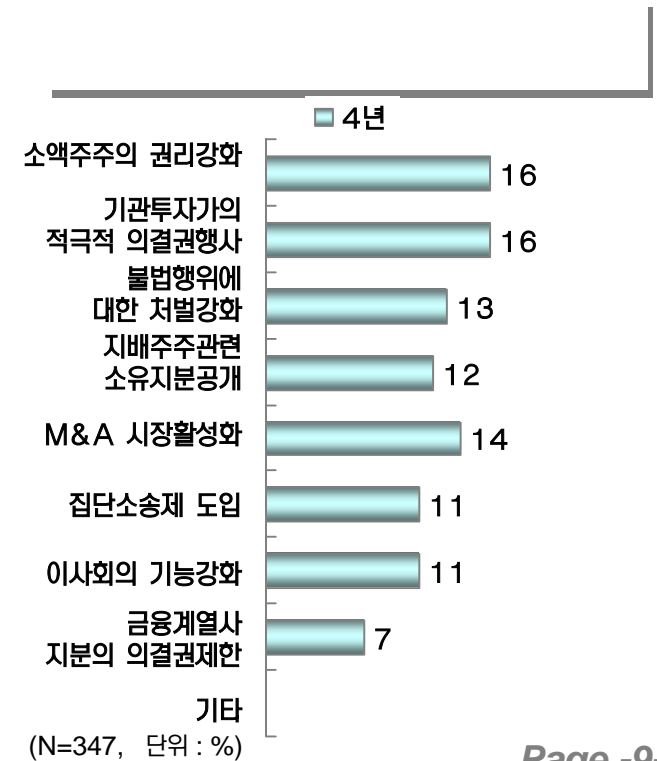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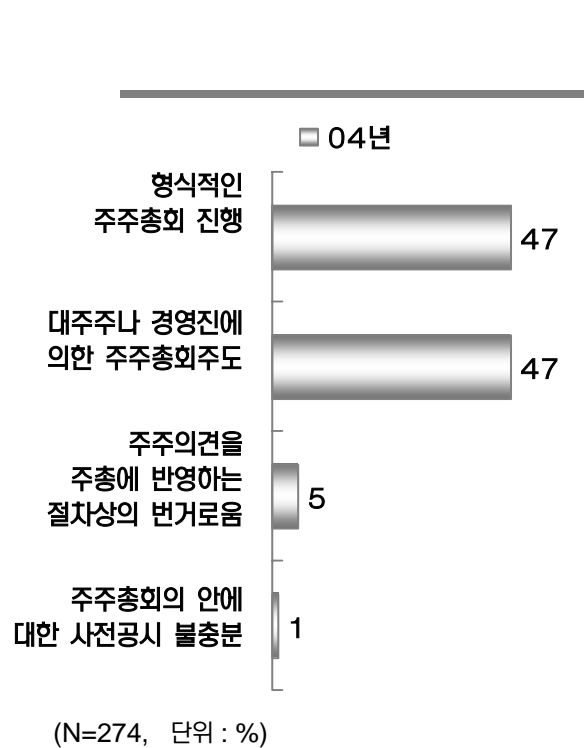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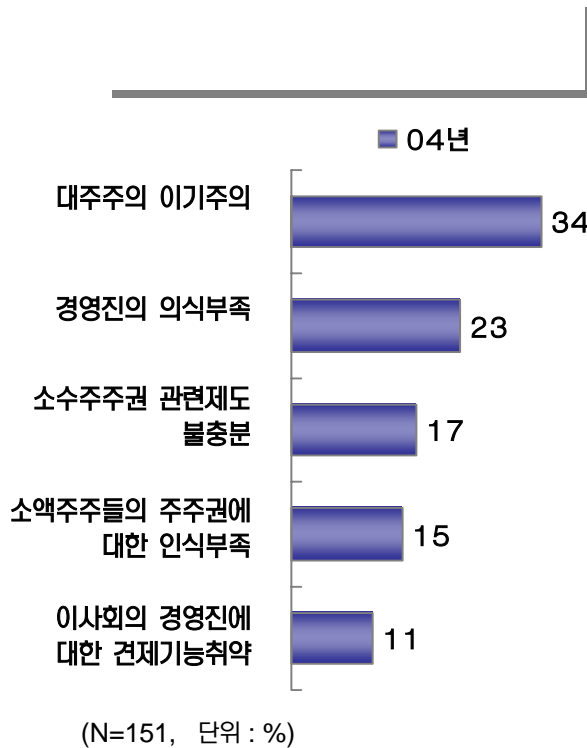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9, t=2.613)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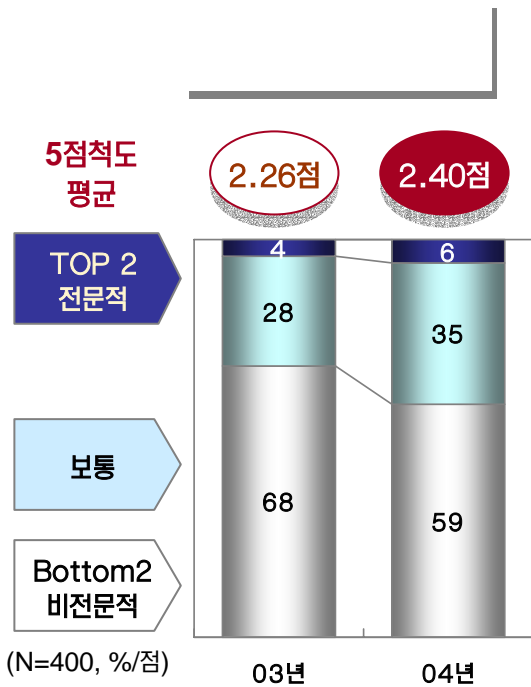
Key Finding

-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이유로는 “대주주의 이기주의”, “경영진의 의식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주주의견 반영정도가 낮은 이유로는 “형식적인 주주총회 진행”,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주주총회 주도”가 지적됨
-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M&A시장 활성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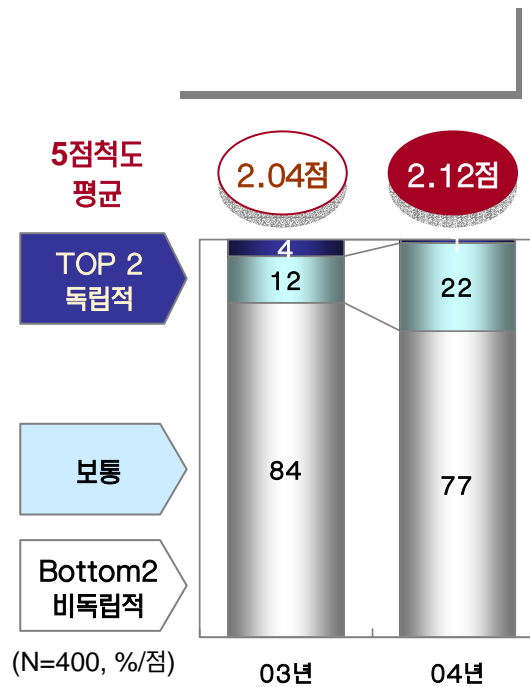


Key Fi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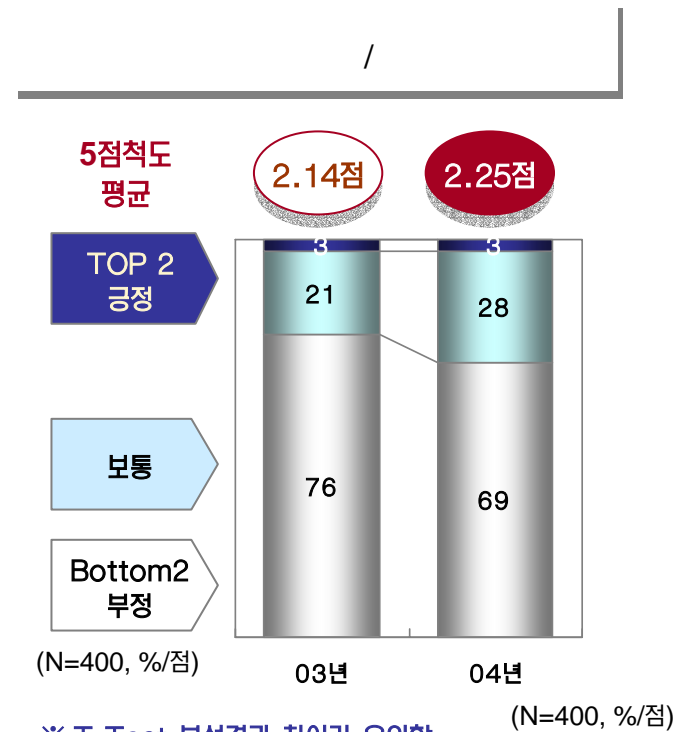
-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임
단, 이사회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모두 03년 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기능 수행에 대해서도 03년 대비 다소 긍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3, t=2.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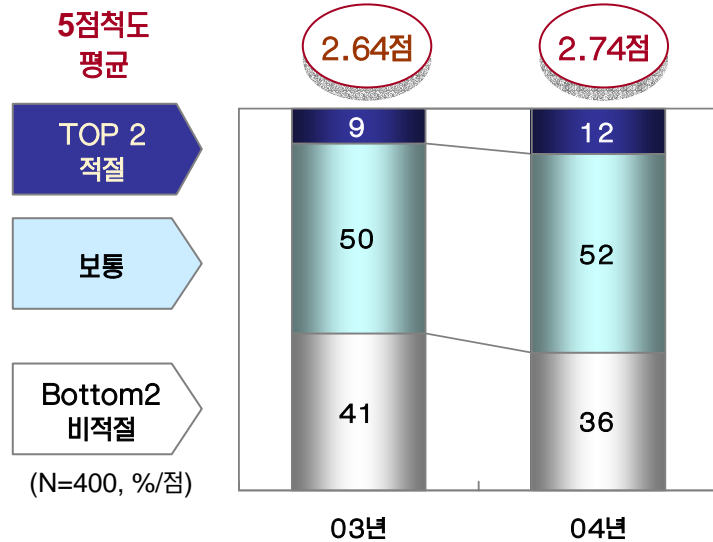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91, t=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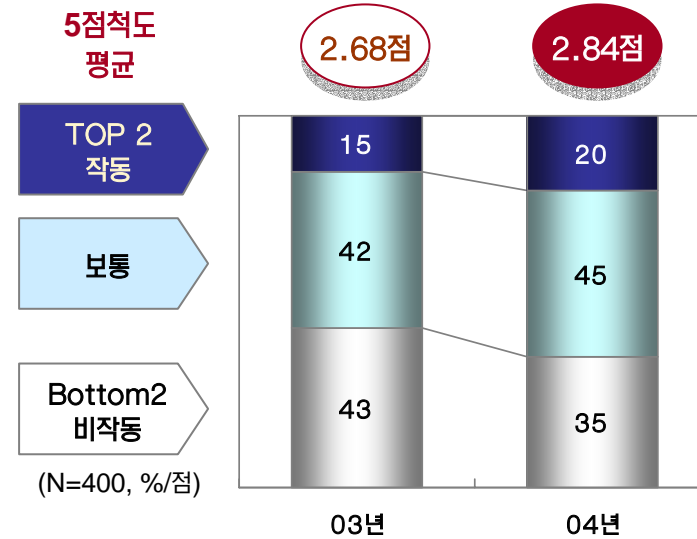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17, t=2.389)

Key Finding

- “경영자 선임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03년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음
- 성과시스템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03년도 대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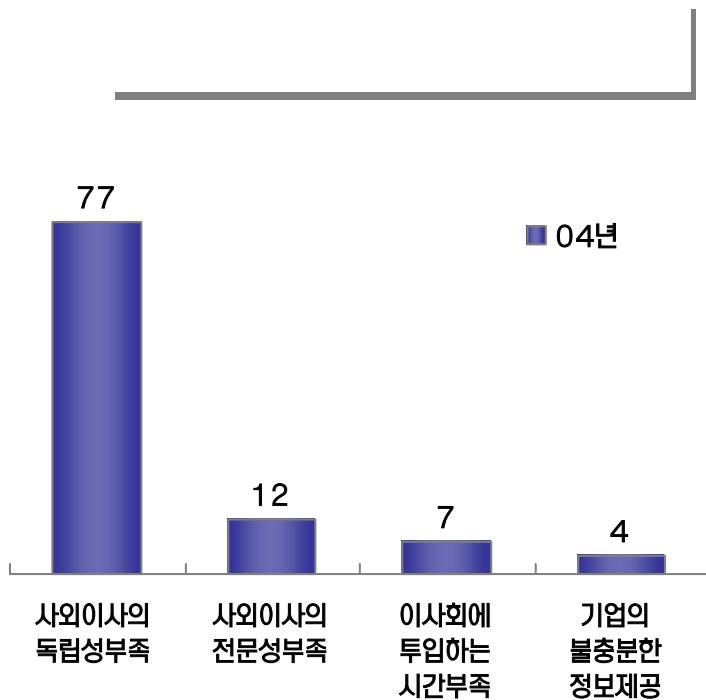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p=0.077, t=1.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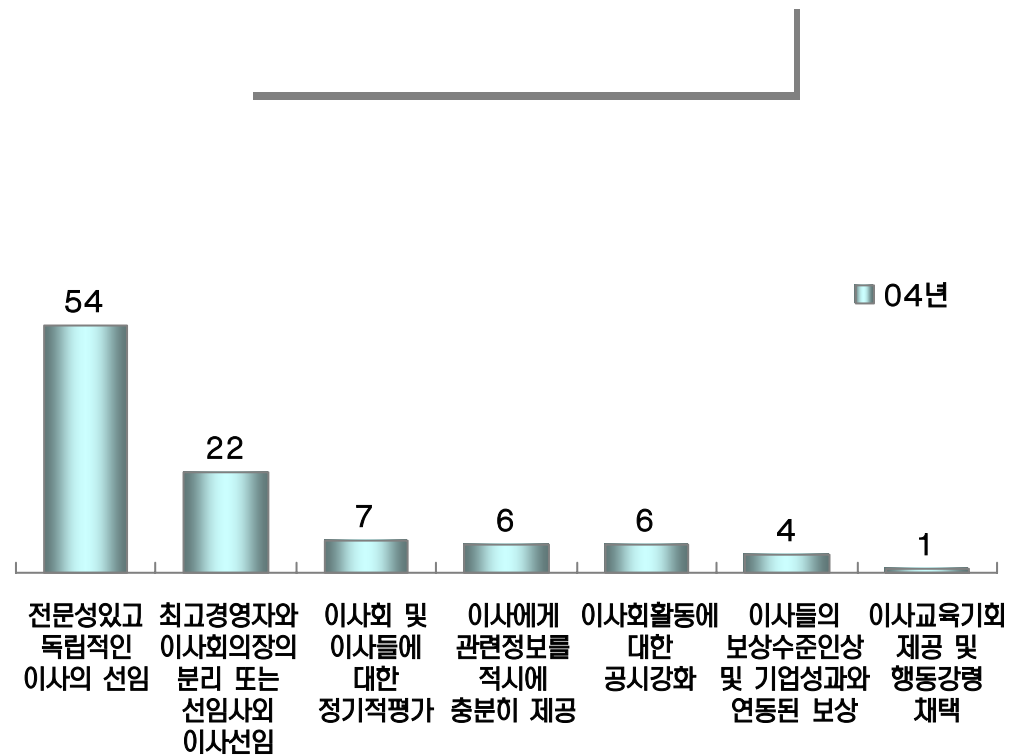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5, t=2.811)

Key Finding

- 사외이사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 및 “최고경영자와 이사회회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N=275, %)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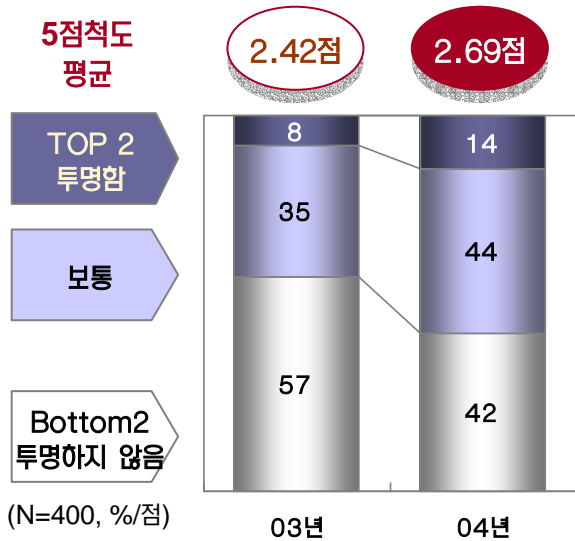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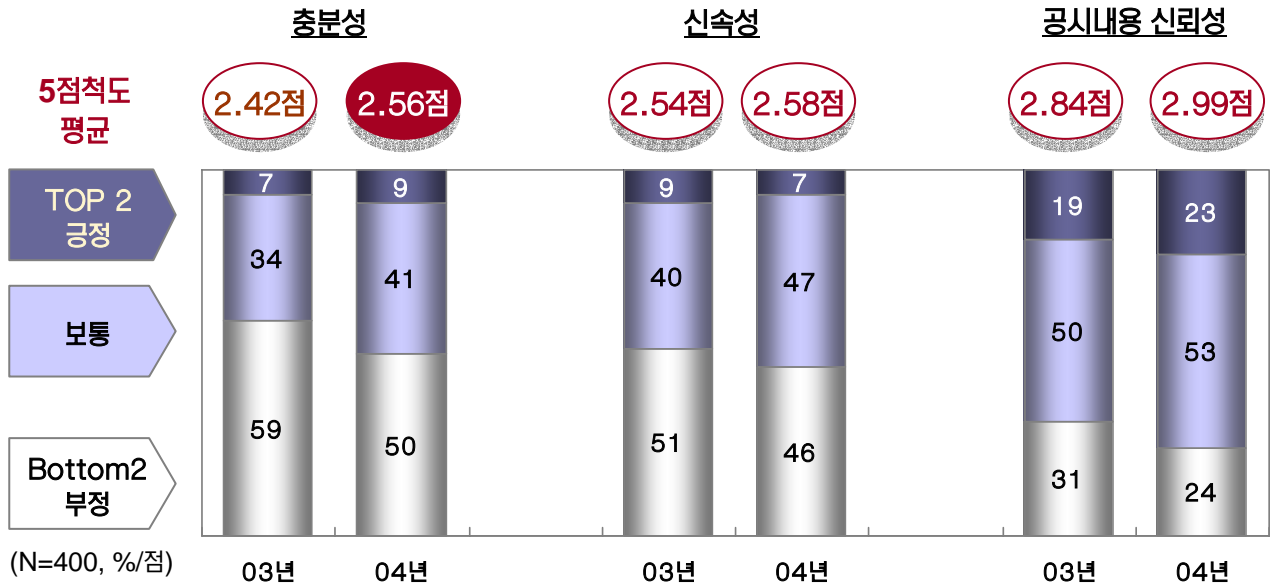
Key Finding

- 기업 회계 및 경영투명성은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으나, 03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음
-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 “신속성”, “공시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큼
 정보 충분성은 03년 대비 다소 나아졌으나, 신속성과 신뢰성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가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0, t=4.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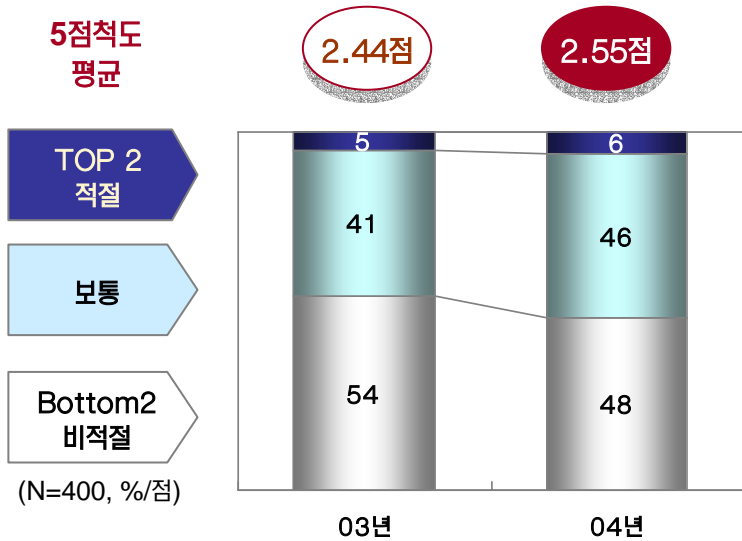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9, t=2.626)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p=0.454, t=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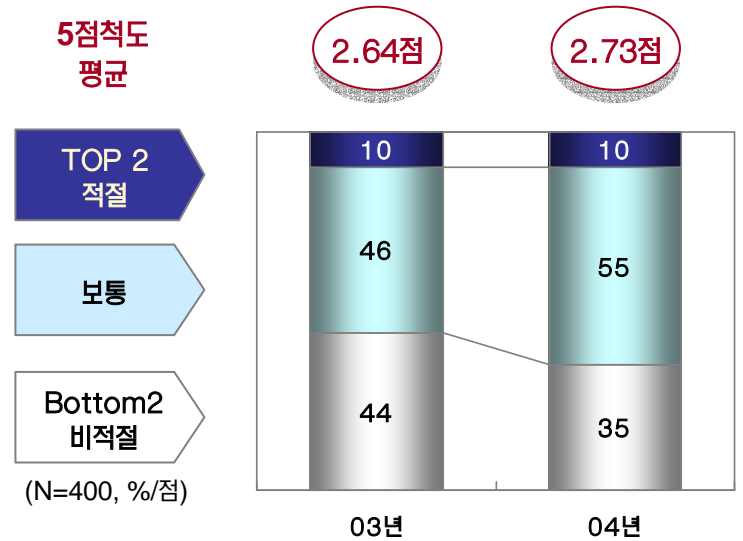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p=0.085, t=1.726)

Key Finding

- 내부감사인 보다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으며,
내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적절성은 03년 대비 다소 상승한 반면, 외부감사인은 03년과 유사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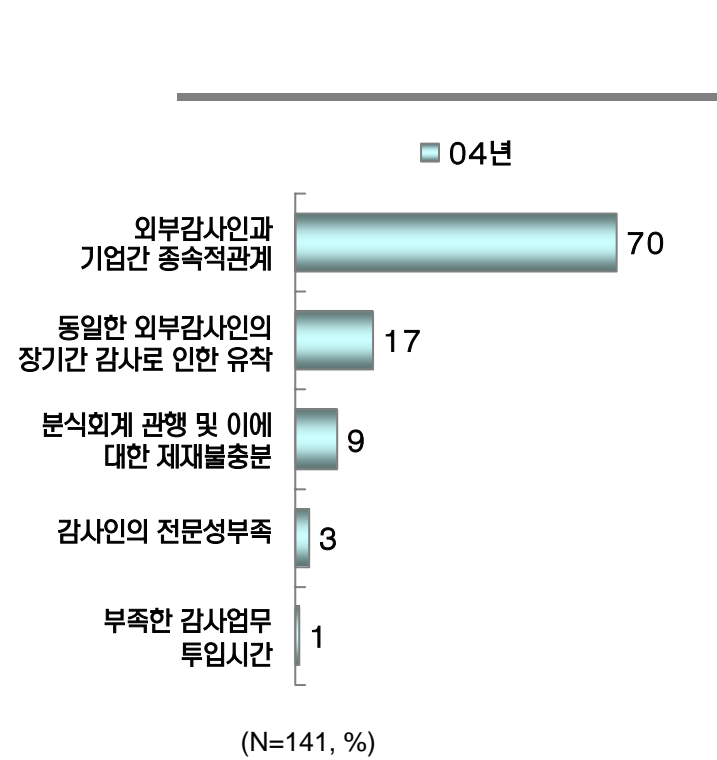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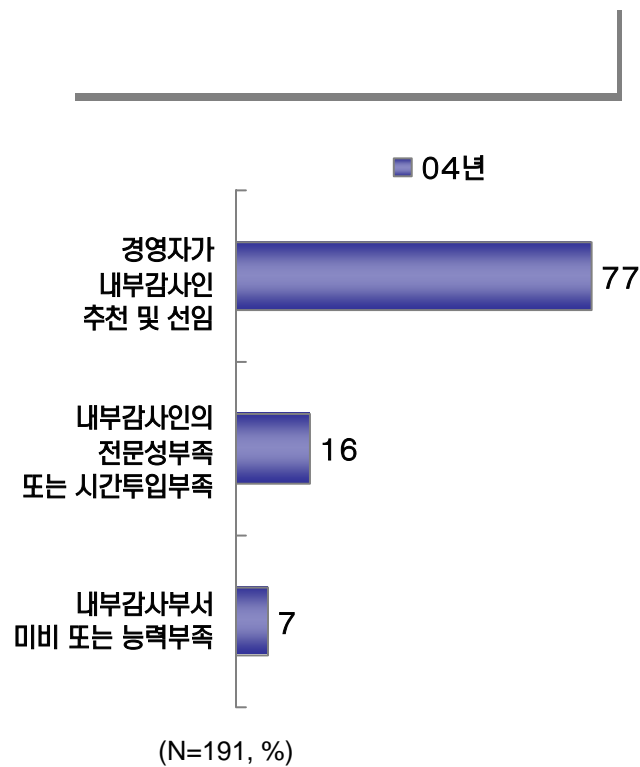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37, t=2.090)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p=0.077, t=1.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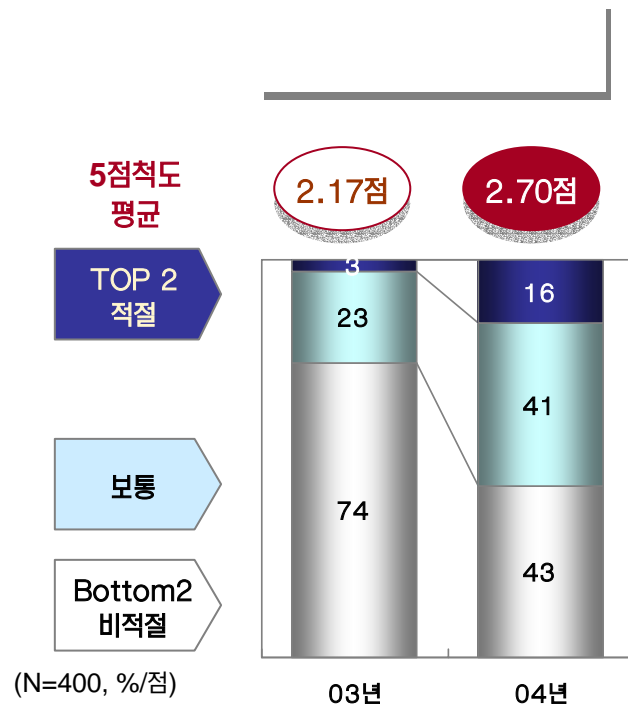
Key Finding

- 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감사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과 “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종속적관계”의 탈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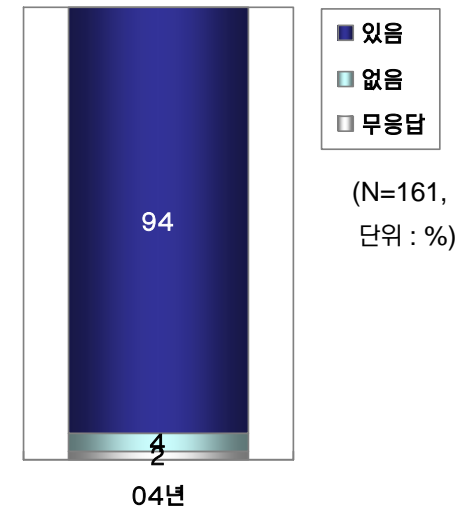


Key Finding

- 기업의 배당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43%로 나타났으며, 이는 03년 대비 배당수준이 매우 상승하였다는 평가임
- 적정배당 실시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0, t=1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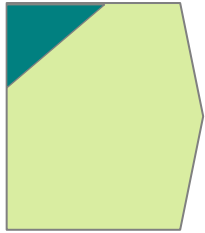


※ T-Test 분석결과 차이가 유의함
(p=0.000, t=4.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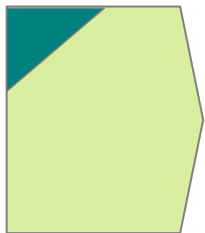
가 가

가 2003 가 가 , 가
「 」
「 」

- 가 , 가
- “ ” “ ” , “ ” “ 가
- , ,



“ ” 가 ,
→ ,



“ ”가 ,
“ ” “ ”
” “